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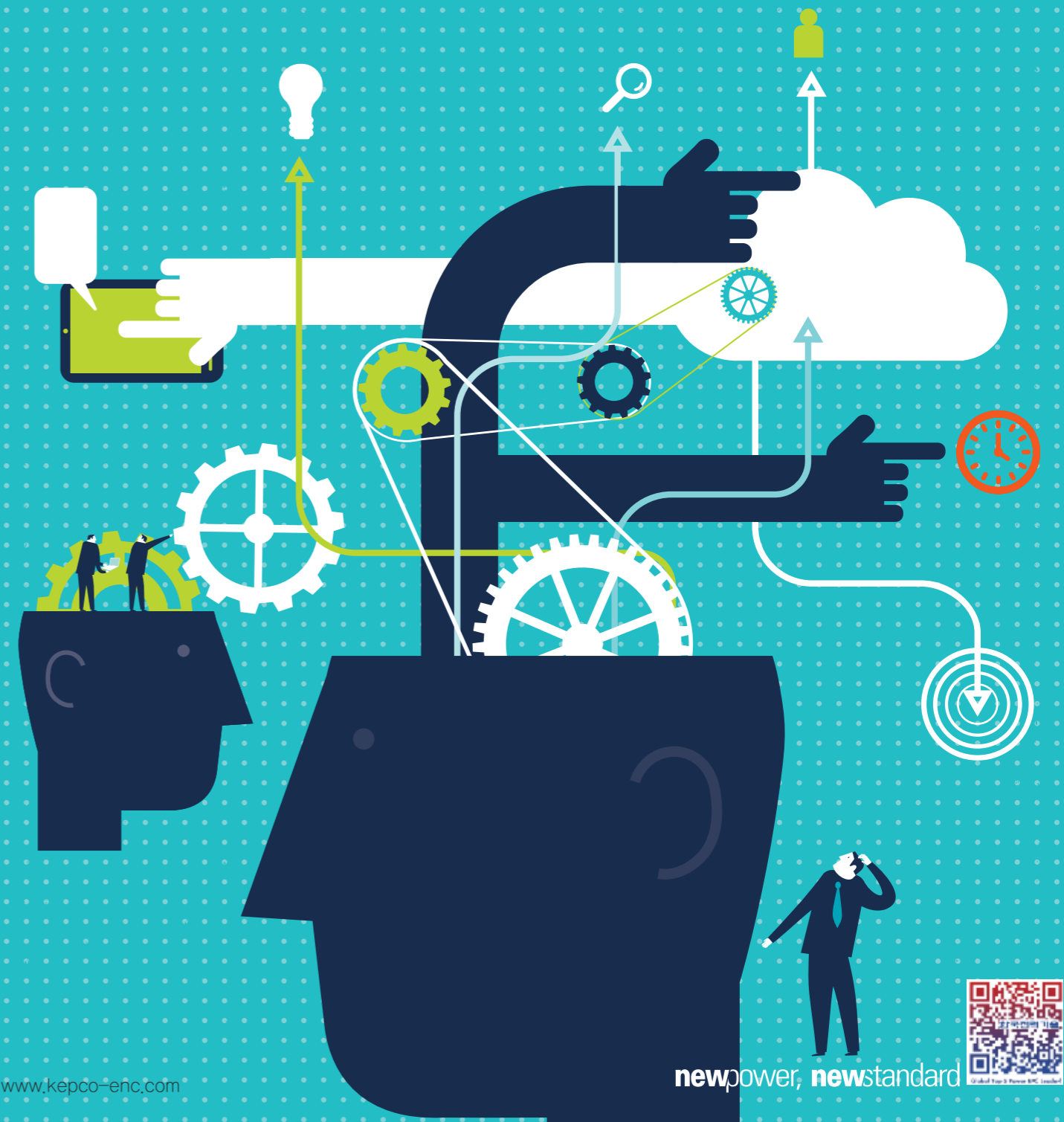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3년 9월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로서, G20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고 GDP 기준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를 차지하며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모임입니다.

201506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5년 6월호



# Family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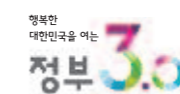
- 04 **Focus** | 김천혁신도시에 보금자리 갖춰다 외
- 08 **명품기술** | Double-walled Piping 및 Seismic Isolation Gap을 고려한 배관 Layout 설계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2 **우체통** | 포토제닉 [2014 Power Engineering School]
- 14 **문예** | 수필 - 지락지요(至樂至要)
- 16 **Photo Gallery** | 한기가족 사진 콘테스트
- 18 **일하며 즐기며** | 달려서 먼저 가봅니다 외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4 **新성장지도** | 명망 높은 남한강의 절경 - 단양
- 30 **창을 열며** | 金炳朝의 明心寶鑑
- 32 **Storytelling** | 공사 현장을 방문한 서당회원들, 완성된 상량문을 칭찬하다
- 34 **기자칼럼** | 메르스와 한국경제
- 36 **생활과 과학** |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김점중
- 38 **Culture** | Festival, Musical, Book, Movie
- 40 **KEPCO E&C News** | 201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
-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6 **인포메이션** | 렌터카 사용 전, 예약 취소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 47 **에코포토** | 기대



통권 401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5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전 화 031-289-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디자인생선가게(02-3673-2220)



## 김천혁신도시에 보금자리 갖췄다

지역가치를 소중히 하는  
세계의 중심기업으로 도약 다짐

김천혁신도시 신사옥이 준공되었다. 회사는 2012년 10월 15일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수한 이래 약 3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5월 28일 김천시청으로부터 신사옥 사용승인을 취득함으로써 5월 31일 새로운 보금자리의 준공을 맞이했다. 김천 신사옥은 대지면적 12만1,919.3㎡ 위에 시설면적 14만5,864.24㎡의 지상28층 지하2층 규모로 건립되어 김천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사옥 내부는 최첨단 보안시스템 및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엔지니어링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분야간 연계를 감안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로는 200여명 수용 규모의 독신자숙소와 보육시설이 별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박구원 사장은 “신사옥 준공은 바야흐로 김천시대를 여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라며 “이곳에서 Global Power EPC 기업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합심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계의 중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 친환경 나눔 버스승강장 기부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친환경 나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7일 수원시와 ‘친환경 나눔 버스승강장 설치 공동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일에는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 회사는 수원과 용인 지역의 노후 버스승강장을 친환경, 나눔의 개념이 도입된 새로운 버스승강장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우리 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수원시와 용인시에 제안하여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구원 사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박구원 사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나눔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수원과 용인 지역 시민에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다”며 “한전기술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게 될 친환경 나눔 버스승강장은 수원시에 2개소, 용인시에 1개소가 설치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석재와 목재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LED를 활용한 유리조명, 풋라이트(Foot Lighting) 장치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을 연출하고 편의성도 확보하였다. 특히, 태양광 설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통카드 기부시스템(1회당 1,000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도 이루어지도록 했다.

# 중국동포 청소년들의 '우리 말, 우리 글' 전수 협력

운동주문학상 백일장대회 협력·지원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회사는 지난 5월 3일 중국의 연변인민출판사 중학생 잡지(대표 오경준)와 운동주문학상 백일장의 지원과 협력을 다짐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운동주문학상은 지난 2000년도부터 중국내 230만 조선족 동포와 중학생들에게 우리 말, 우리 글의 우수성을 전수하고, 민족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이 지역의 용정출신인 운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기리면서, 동포 청소년들의 우리 말 글짓기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연세대학교 등 한국의 대학과 사회단체, 기업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백일장 행사를 지원해 왔다.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김순경 상임감사는 "중국 전역의 동포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문학상으로서, 명실상부한 자리를 굳혀주고 있는 운동주문학상이 겨레의 미래를 열어갈 동포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내 많은 대학과 단체, 기업들이 중국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글과 문화의 전수와 보존에 더욱 활발하게 지원해 줄것을 기대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은 지난 2005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자매결연을 통하여 유라시아 연결의 핵심 축으로서 러시아, 중국 등 경제협력의 중심지역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연길 등 국경지역의 사회적 친화성을 제고하면서, 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정서적 결연을 강화하여 통일시대의 개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국내에서는 사내 참사랑 봉사단을 중심으로 1사 1촌 결연사업,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현지의 태권도대회 지원, 빗물재활용 수도시설 지원 등 진출지역에 특화된 결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백일장에는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골자치구 등 중국 전역의 조선족중학교에서 예선을 거친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회 종합대상 1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2014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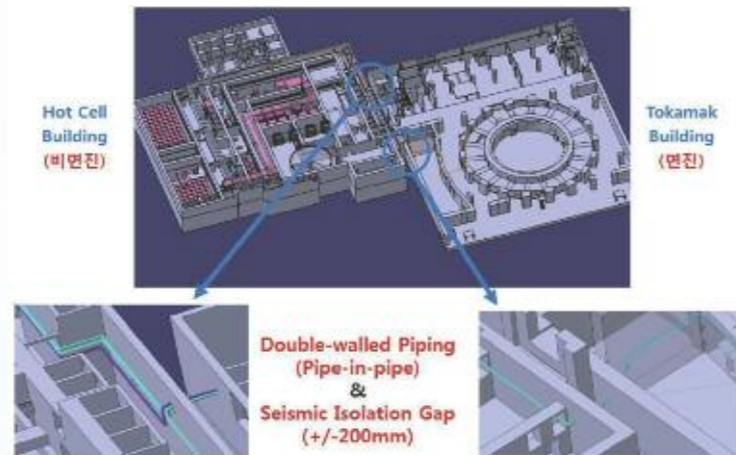
회사는 2014년도 우수기술개발과제 발표회를 지난 4월 24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미래전력기술연구소장, 주요기술부서장 및 과제 참여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과제별 발표와 질의응답, 사장님 강평,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우수기술개발과제는 2014년도에 수행한 총 119건 중 종료가 이루어진 43건을 대상으로 각 기술심의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박구원 사장은 "한기만 할 수 있는 일, 한기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에 매진해 노형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사는 중장기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서 기술개발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 ▶ 3D기반 선진 배관감독 관리 프로그램 개발 (재료기술그룹 황경모)
- 우수상 ▶ 연구소 사업을 위한 원전설계운전자료 처리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김충태)
- ▶ 발전설비 수처리/폐수처리/중수도 통합 최적공정 표준화 (신재생환경기술그룹 김기석)
- 장려상 ▶ D3(다양성 및 심층방호) 요건을 최적화한 고신뢰도 다양성보호계통 개발 (계측제어기술그룹 오양균)
- ▶ Non-LOCA 최적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안전해석그룹 이철신)
- ▶ 배관 두께 측정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감속 속도 최적 평가법 개발 (미래전력기술연구소 박홍배)

# Double-walled Piping 및 Seismic Isolation Gap을 고려한 배관 Layout 설계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국제기구는 지진이 주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면진기술을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면진설계는 토카막(Tokamak) 빌딩에만 적용되고 인접한 다른 빌딩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빌딩들간의 상대적인 변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ITER설비에는 배관 안에 배관이 존재하는 이중배관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관은 원자력 산업계에 적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국내외적으로 설계 및 건전성평가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TER Tokamak 빌딩과 Hot Cell 빌딩을 연결하는 액체폐기물계통 이중배관을 대상으로 면진설계 적용에 따른 지진에 의한 빌딩간 상대변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설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배관에 대한 설계 및 건전성 평가방법론을 검토하였으며, 지진 상대변위를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배관배치 형상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최적의 배관배치 형상을 제시하였다.



[그림 1] ITER 액체폐기물계통 이중배관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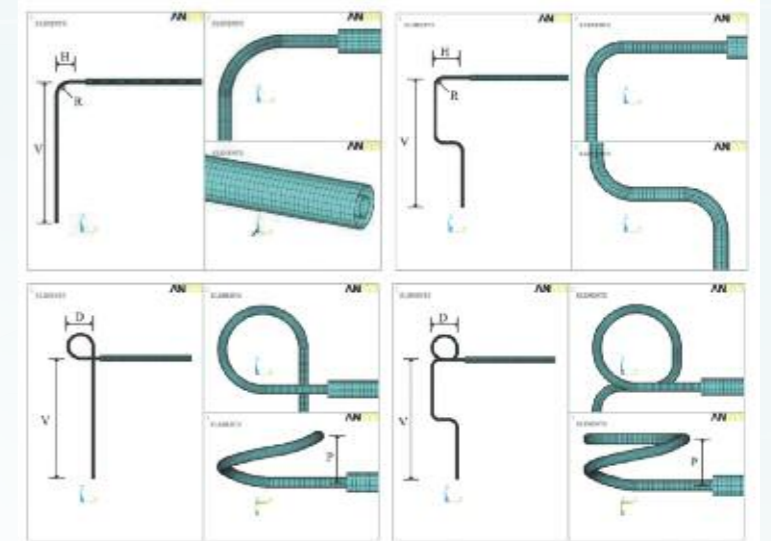
## 필요성 및 배경

지진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의 기기 및 배관에는 매우 큰 하중이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한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이다. 최근에는 구조물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면진기술을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TER국제기구도 핵융합 원자로가 존재하는 Tokamak 빌딩에 면진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면진은 Tokamak 빌딩에만 적용되고 인접한 다른 빌딩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빌딩들간의 상대적인 변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설계 현안이 되고 있다. 한편, 이중배관은 배관 안에 배관이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서 주로 내부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산업계에서 드물게 사용하고 있다. ITER국제기구는 차폐와 누설감지를 목적으로 이중배관을 도입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배관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건전성 평가기술은 이중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PYPSSYS 등과 같은 일반적인 배관응력해석 프로그램으로는 이중배관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중배관 설계를 위한 별도의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 주요 연구내용

ITER 액체폐기물계통 배관은 [그림 1]과 같이 Tokamak 빌딩과 Hot Cell 빌딩을 관통하여 Radwaste 빌딩으로 연결되는 배관으로서 이중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Tokamak 빌딩과 Hot Cell 빌딩을 관통하게 되므로 두 빌딩의 지진 상대 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ITER 액체폐기물계통을 대상으로 이중배관에 대한 설계 및 건전성 평가방법론을 검토하였으며, 지진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배치 형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대표적인 배관형상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모델

이중배관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적인 이중배관의 형상 및 ITER 액체폐기물계통 설계 조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중배관의 설계 및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중배관에서는 내부 배관과 외부 배관 사이의 Spacer 및 용접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변형의 구속이 발생하게 되므로 배관응력 해석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구속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구속으로 인해 배관의 유연성이 감소하게 되어 지진 상대변위의 흡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한다. 한편, 지진의 상대변위를 배관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배관배치 형상이 필요하다. [그림 2]와 같은 다양한 배관형상을 대상으로 다수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지진 상대변위를 흡수하기 위한 관통부 이중배관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ITER 액체폐기물계통에 대한 최적의 이중배관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진 상대변위를 고려한 이중배관의 설계 및 건전성평가 기술은 ITER Tokamak Cooling Water System 등 향후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회사의 선도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습득한 기반기술은 향후 많은 연구 및 사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



계곡물 소리 들리는 산길을 오른다.  
초록 잎들은 창공을 향해 손을 뻗었고  
숨을 공간이 많아진 산새들은 흥에 겨워 재잘거린다.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만 잘 지키라 했다.  
돌아오지 못할 과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지레 겁먹지 말라는 것.

자연 속에 들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했거늘  
빙하수에 발을 침범 담근 기분이랄까.  
몸과 마음에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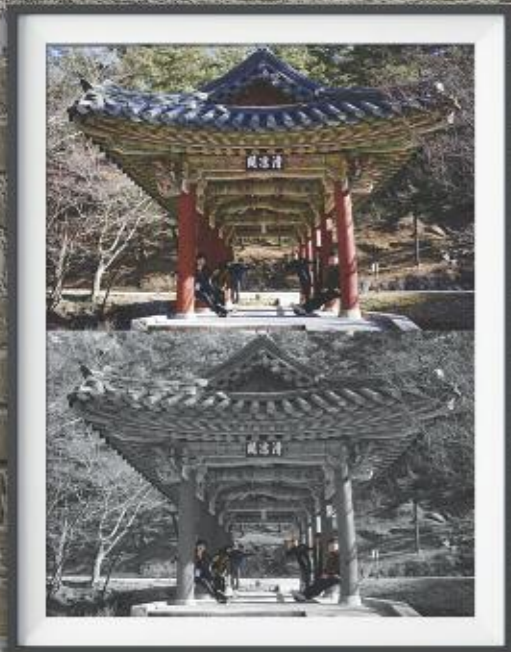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유행가 가사를 되뇌며 실없는 웃음을 흘린다.  
쉬엄쉬엄 천천히 가면 많이 본다.  
속도를 늦추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제일 먼저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뿔박질 무리에 섞여 오늘도 숨이 차다.

어디로 가는가.  
날아가는 새들 -  
길을 묻는 사람들 -

# Photogenic

[ 2014 Power Engineering School ]



<수필>

# 지락지요(至樂至要)



삶 속에 즐겁고도 유익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최고의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다(至樂 莫如讀書 至要 莫如教子)”라는 구절이 있다. 내가 인생의 고개 마루를 넘고서야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래, 인생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는 책을 읽는 것이리라.

나는 원전설계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이지만, 학창 시절부터 역사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틈나는 대로 인문 분야의 책들도 즐겨 읽었다. 아내도 책을 좋아하여 세 자녀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다. 나의 장인 또한 책을 좋아하여 젊은 시절부터 지인들과 독서회를 만들어 책을 읽고 일흔이 넘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처가에 갈 때면 서가에 가득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며 자극을 받았고, 장인의 독서모임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척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의 감성이 가장 예민했던 스무 살 되던 겨울, 함석헌 옹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를 읽던 중에, 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듯한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웠던 일이 기억난다. 우리 민족의 태동기인 고조선부터 삼국, 고려, 조선, 일제속국 시대까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주요한 대목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해석한 독창적인 책이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무미건조한 사실적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였고, 시와 노래, 철학과 사상, 아니 절절한 사랑이었다. 이후로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두 권을 꼽으라면 주저함 없이 성경과 이 책을 꼽게 된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하는 대신,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금쪽같은 일 년을 보내리라 단단히 작정하고 책과 생활 도구를 지게에 가득 지고 우리 동네 너머 있는 깊은 산속의 작은 산사로 들어갔던 때가 기억난다. 당시 마음 깊이 간직했던 함석헌의 시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자연 이야말로 하나님과 또 다른 말씀이 아닌가!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요 간절한 위로를 주는 친구이다”. 그때 책에 대한 안목이 좀 더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랬더라면 정말 황금같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얼마 전 한 지인이 좋은 책 한권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였다. ‘세상을 리드하는 0.1퍼센트의 인문고전 독서법’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은 나에게 흥분과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저자는 세계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인문고전 독서라는 공통된 삶의 배경이 있음을 역설하였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였고, 얇은 물가에서 노닐던 나를 깊은 독서의 바다로 이끌어준 책이 되었다. 오호라!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야 만나다니!

나는 무언가 마음에 깊이 와 닿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잘 권하는 편이다. 때마침 초등 4학년이던 막내아들이 “겨울방학 숙제 중에 독후감 제출이 있는데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는 녀석이지만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염려하며 조심스레 권해 주었다. 그런데 막내 녀석이 이 책에 흠뻑 빠져들어 다 읽고는 처음으로 원고지에 또박또박 독후감을 썼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바로 그 다음 달, 우리 다섯 가족이 매월 가족독서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독서회를 시작하기 한 달 전, 가족의 공감과 호응을 얻기 위해 몇 가지 목표와 원칙을 세웠다. 매월 각자 인문 고전 한권을 정독하고 독후감을 쓴다. 열정적인 독서로 지혜와 열정, 영감과 창의력을 공급받는다. 읽은 책은 동서고금의 명저를 물색하여 권위자가 번역한 완역본으로 결정한다. 가급적 생각의 폭이 다양하고 넓어지도록 동, 서양의 책들을 번갈아 읽는다. 매월 가족독서회로 모여 각자의 독후감을 발표하고 즐겁게 토론한다. 가족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격과 학문을 갈고닦고 함께 명문가를



이루어간다. 모임 끝에는 책거리 기념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즐겁게 외식한다.

독후감은 A4 용지 한 장을 넘기지 않게 하고, 책 제목과 저자, 1) 책의 핵심 내용, 2) 마음에 와 닿은 부분, 3)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핵심과 깨달음 등 독후감 형식이 통일되도록 했다. 모임 시작 후 큰딸이 사회를 맡았고, 자기 순서가 되면 읽은 책을 소개한 후 독후감을 낭독하고, 다른 가족은 경청 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모임이 두 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모임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다 보니 독서를 더 충실히 하는 이점이 있고 가족 간의 유대와 화목이 굳건해졌다. 다행히도 가족들이 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어 독서모임이 지금까지 모두 14회 지속되어 왔다. 독서회는 매번 가족 모두에게 즐거움과 유익함, 자부심을 가득 안겨준 작은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독서회를 시작한 후 읽은 책들 중 특별히 감동 깊었던 책 하나만 소개한다. 바로 빅토르 위고의 불후의 명작 『레 미제라블』이다.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은 뮤지컬로도 명성이 높는데, 얼마 전 영화로도 상영되어 온 가족이 함께 관람했다. 뮤지컬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받았다. 때마침 정기수 교수의 『레 미제라블』 완역본(전5권)이 출판되어, 원작 소설을 완독해 보자는 가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워낙 대작이기에 아내와 고1 작은딸은 석 달, 나는 직장 일급 달 걸려 전권을 완독했고, 큰딸은 올해 들어 읽기 시작해 지금 제5권을 즐겁게 탐독하고 있다.

장발장으로 널리 알려진 『레 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는 가운데 역사와 혁명, 철학과 신앙, 헌신과 희생, 선행과 악행, 숭고한 사랑 등 인간사의 모든 것을 축약한 대서사시다. 뺨 한 조각에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된 전과자가 어떻게 성자(聖者)가 되어 가는지를 보며 전편에 흐르는 숭고한 사랑에 가족 모두가 전율했다. 이 책이 가족들에게 준 감명은 너무나 컸었기에 여러 번 독후감을 나눌 때마다 다양한 질문과 열띤 대화가 넘쳐났다. 한번은 자베르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오랜 의문점이 독서회 중에 대화를 통해 동시에 해결되면서 일순간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를 쳤던 일이 생각나 웃음이 난다.

언젠가 막내아들이 “아빠, 나도 명언을 하나 지어야겠어요.” 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돈다.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는 단순히 백점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 이 또한 독서가 불러온 작은 영감(靈感)이 아니겠는가. 돌아보니 우리가 경험한 가족독서회의 즐거움과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족들 모두 10년, 20년, 아니 평생토록 대를 이어 즐겁게 지속하기를 열망하고 있기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

책 속의 스승과 친구를 대면하여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값진 삶을 꿈꾸는 일은 참으로 즐겁지 아니한가. 이 글을 쓰던 중에 잠시 집밖을 나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 마침 중천에 보름달이 구름을 두른 풍경이 천상의 캔버스에 펼쳐진 한 폭의 그림 같다. 고고(孤高)한 달이 은은한 빛을 세상 위로 뿌리고 있다. 달빛 가운데 동네 길을 천천히 걸어본다. 한여름 깊은 밤, 만물이 고요한 시간에 내 마음 가득히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2014.08.10.보름> E&C



# 한기가족 사진 콘테스트



## 가족! 10년후

홍만화 | 품질안전환경처 부장

37살, 1999년 11월 29일 결혼 후, 매년 결혼기념일에 사진을 찍었다. 2001년에는 큰 딸과 함께, 2003년에는 둘째 딸과 함께, 2004년에는 셋째 딸과 함께 찍었고, 2004년의 사진이 아래 작은 박스가 2004년에 찍은 사진이다. 2014년, 결혼기념일에 사진을 찍고 보니, 10년 전의 사진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기도 하고, 그간 낯익어 자란 아이들의 모습이 흔쾌하여, 기념으로 남겨 보았다.



## 우리 다시 날아봐요^^

심은섭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과장

5월 5일, 화창한 어린이날.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개의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었다. 아이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았으며, 때론 즐거운 얼굴로 하늘을 날았다. 한가지에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의 사진은 볼 때마다 나는 늘 행복하다. 너무나 맑은 아이의 얼굴처럼, 우리도 2015년에는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늘을 향해 뛰어날기를 기대해 본다.

# 44:15:39

## 달려서 먼저 가봅니다

우리 회사 유일의 울트라마라톤 그랜드슬래머(한반도 종단 622km, 537km 및 횡단 307km 완주자)인 원자력) 토목건축기술그룹 박진경 부장이 지난 5월 28일 용인사옥 정문에 섰다. 이유는 새로이 이전하게 될 김천 신사옥까지 새로운 출발에 대한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달려나가기 위함이다.



- 07:20 용인본사출발
- 10:00 양지 I/C 통과
- 13:30 칠장사 휴게소 통과
- 16:10 진천 고속도로 I/C 통과
- 21:30 청주, 오창통과

### 5월 28일 본사 출발

박진경 부장은 오전 7시 20분 용인본사를 출발했다. 양지~광혜원~진천~청주~보은~황간~추풍령~김천~신사옥까지의 217km, 46시간(30일 오전 5시 도착 예정)의 일정이다. 완주 성원을 위해 배웅하는 아침부터 여름과 같은 햇볕이 짹짹 내리쬐었다.

### Q. 이 더운 날씨에 왜 또 달리는지요?

A. "건강을 다지면서 열심히 일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음에도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바람을 가르며 김천신사옥을 향해 달려나간다. 15시 33분에는 죽산을 지나 칠장사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나 강렬한 햇볕과 무더위이다. 오십대 후반의 나이에 땀은 비 오듯 흘러 얼굴을 적시고 입은 옷도 흥뻑 적셨을 텐데 217km를 달리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회사 게시판에는 한기의 울트라맨 박진경 부장 응원하의 다양한 메시지와 셀카를 찍을 때 표정관리 잘하라는 애교 있는 메시지까지. 모두 응원피켓을 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메이저 대회의 우리 회사 대표 박진경 선수를 응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방금 박진경부장과 통화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 고생하고 있습니다!

힘만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박진경부장을 응원하고 축하합니다.^^

한기의 강판스타! 박진경 부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파이팅! 완주하시고 휴기를 꼭 꼭 즐겨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러워 조심하시고, 완주를 기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더운데, 온갖체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부장님 파이팅~ 땀은 힘들 여정이지만 셀카는 표정관리 잘해서 촬영하시기~

무사완주를 기원합니다. 한기의 힘찬 안근 달리십시오.

한기의 울트라맨! 파이팅입니다.

이 더위에 무사 완주를 기원합니다! 한기에게 힘찬 응원을 주세요. 파이팅!!!

### 5월 29일 청주, 보은 진입

청주 육거리를 밤 12시에 통과하였고 아침 8시에는 보은 군에 진입하였다. 앞으로 남은 거리는 약 70여 km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한다.

### Q. 잠은 어떻게 자는지요?

A. 울트라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여관, 모텔 등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 또는 도로변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 Q.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A. 주로 쉬는 곳 근처의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이때 간단한 샤워와 족집을 자기도 합니다.

몸은 하루를 종일 달려 모든 근육들은 긴장해있고 불편하게 족집을 자서 피로가 쌓여 있다. 희망은 쉽게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다.



- 00:00 청주육거리시장 통과
- 08:00 보은통과
- 10:30 원남 통과
- 14:00 청산 통과
- 16:00 홍산 통과
- 18:30 황간통과
- 21:00 추풍령 통과
- 23:45 김천역 통과



이거 참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큰 족집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부디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남은 거리 잘 마무리 하시길...

무엇보다 건강하게 완주하시길 기원합니다.

29일 오후 3시쯤 저 멀리 불은군이 보인다고 메시지 왔네요. 힘내세요.

많은 옛날사장이, 회사근처 길거리, 저마치 박진경부장이 뛰어도, 어디가 집에 쉬는데? 안양 뭐?? 거기까지 뛰어가? 몇 킬로미터인데? 양킬로미터 밖에 안돼^^ 둘이 서로 놀라 앞도 못보고...

### 5월 30일 김천신사옥 도착

김천신사옥까지 달리는 동안 뜨거운 태양과 아스팔트 위의 열기로 피로감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고 한다. 그럴 때 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주옥 같은 격려의 글들을 꺼내 읽으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무사히 달릴 수 있었다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천신사옥에는 계획보다 빠른 30일 오전 1시 30분에 도착하였다. 박진경 부장은 "새롭게 다가올 김천시대를 희망하며 달렸고 또 이 마라톤으로 직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달렸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행함이 많은 것을 바꾸는 것 같다. 인내와 노력을 통해 희망으로 가는 모습을 실천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직원들이 함께 응원하며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척이나 아름다운 조화인 것 같다. E&C

### 01:35 김천 신사옥 도착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노인에 좀 쉬게 해드리고 젊은 피가 대를 이어야 하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5시에 도착으로 알고 월장에 나왔는데...

정말 많이 걱정하셨는데, 건강이 완주하셨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에는 더욱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편만 박부장님 완주를 축하합니다.

인사상의 피크이군요.

멋진 열매를 맺으신 박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공간

# We Cafe

우리 회사 We Cafe에서는 2인 이상의 부서원 또는 팀원끼리 잠시 휴식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매주 선정된 부서의 직원들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또는 음료 한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으며 지난 2월 23일부터 개점한 We Cafe는 현재까지 총 2,981명이 참여했다.



모든 화이팅!!  
Plant ☺

Frenem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riend와 Enemy의 합성어로 진정한 친구이면서 라이벌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Rival이라는 단어는 River, 즉 강을 사이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두고 치열히 싸운 라이벌과도 공생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 합니다. 내 주위에 친구이자 라이벌인 훌륭한 Frenemy가 많을수록 내 인생이 풍성해지겠지요. We Cafe에서 주변의 동료들과 Frenemy들과 정겨운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잠시 어수선함을 내려놓으시고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력기술연구소장 진태은-



저는 인사노무처 소속은 아니지만 인사노무처분도 항상 과내 업무상 업무에 잘 협조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삶의 균형점을 찾는 길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기. 오늘날만큼 휴대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여유를 아는 당신이 되기를!

-원배관기술그룹장 박문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노력이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들과 차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재료기술그룹장 정성규-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합니다. 목도 마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희망이 옆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

-ICT지원실장 윤재로-

사랑하는 부서원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겨내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줄 것 입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개개인 한분한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갑시다. 함께울고웃는 기계배관기술그룹 화이팅!!!

사랑하는 부서원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겨내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줄 것 입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개개인 한분한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갑시다. 함께울고웃는 기계배관기술그룹 화이팅!!!

-기계배관기술그룹장 정병조-

힘들고 어려운 직원 봉사 업무를 웃으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한잔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김병은-

우리 사랑한 화이팅!!



가끔은 일상생활을 접고 한적한 산속에 처박혀 깊은 명상에 잠겨거나 아주 먼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적이 있지만, 그럴수는 없더라도 지금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순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We believe,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전기기술그룹장 기준서-

어제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으며 내일은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오늘은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만들며 모든 내일을 희망의 비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실장 유홍재-

미래의 에너지는 누구? 신재생!  
미래의 지구는 누구? 환경이!  
우리는 누구? 신재생환경!  
우리는 누구? 한국전력기술!  
나가자! 미래를 위하여!!!

-신재생환경기술그룹장 김덕호-



화이팅

Fighting

맛있게 마시고 "우유배관 Y.S.Y"!!

우리에게 러브가 있어 행복합니다.

내테리 만평  
충전해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우리 가끔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적당히 걱정도 해주며 간혹 궁금해하기도 하며 무슨 고민으로 힘들게 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가끔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가장 힘들때면 누가 많이 생각나는지 보고싶은 사람이 있을때면 어떻게 하는지 펜스레 서로 물어보고 싶도록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에게 있다면 그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이란 산길과 같아서 매일 오고 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 진답니다.<인연 우체통>

-기술전략실장 주승철-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사관그룹 내의 과거의 관행과제도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해왔습니다. 이제 용인에서의 어려운 시간을 잘 마무리하여 다 함께 갈, 새 보급자리 김천 신사에서 멋지게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관그룹 직원간 서로 믿고 의지하여 '힛팅' 합시다!

-사업관리기술그룹장 이용역-

우유배! 웃으며 화이팅

# Communication

밤늦은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등이 켜진 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운전석은 비어있고 차문은 잠겨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할지 오지랖 넓은 걱정을 합니다.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차량번호 0000에 미등이 켜져 있는데요.”

잠시 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불일을 보고 나오니 누군가가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사라졌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겨 놓았는지 밀어도 꿈쩍을 않습니다.

금방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인내의 한계점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좀 빼 주셔야 되겠는데요.”

칼날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립니다.

“후진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어이가 없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다시 말했습니다.

“앞뒤로 다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쪽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럼 뒤차에 전화해 보세요.”하고는 뚝 끊어버립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명망 높은 남한강의 절경

# 단양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 주변 볼거리 여덟 가지를 뽑아 '무슨무슨 팔경'이라 이름 붙이길 좋아했다. 이는 중국의 샹오상 팔경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며 유행이 된듯 싶다. 조선 시대로부터 전국의 팔경들 중에서도 확고하게 인정받은 팔경이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관동팔경과 단양 팔경이다. 남한강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단양팔경과 단양의 볼거리들을 소개해본다.





02

**월악산이 풀어놓은 옥류천의 세 바위와 사인암**

월악산 동북기슭에서 흘러나와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단양천 상류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세 바위, 곧 하선암 증선암 상선암이 단양팔경의 1경부터 3경이다. 청계옥류. 말 그대로 차고 맑은 계곡 물이 흐르고, 지류 곳곳마다 기암괴석들이 자리를 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풍채가 뛰어난 세 바위들이다. 탁족을 유난히 즐겼던 옛 선비들에게 남한강지류의 대표적인 탁족처로 각광받았음은 물론이다. 일찍이 이곳을 찾았던 퇴계 이황은 하선암의 절경을 묘사하면서 '봄이면 철쭉 꽃이 노을과 같고 가을이면 단풍이 비단과 같다' 라고 하였다.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가 무쌍하고 심 없는 물소리가 가슴을 씻어주는 곳이다.

제4경인 사인암은 단양팔경 가운데서도 다시 손꼽히는 경승지이다. 깎아지른 암벽이 병풍처럼 서있고 그 아래로는 맑은 물이 교교히 흐른다. 치솟은 바위벽은 가로 세로로 금이 가서 요모조모 쌓고 끼운 듯하다. 단양사람으로 고려 때 역학의 대가였던 우탁이 사인벼슬을 지낼 무렵 여기 와서 노닐었는데, 조선 성종 때 단양군수를 지낸 임재광이 그것을 기려 사인암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의 풍광을 사랑하였음을 말하듯 암벽 아래 너럭바위에는 비독판과 장기판이 새겨져 있고 암벽 아래와 옆으로 돌아가며 이황, 이인상, 이운영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01 양백산에서 바라본 단양과 남한강 02 옥순봉 옥순대교 아래로 유유히 흘러가는 충주호 유람선 03 전설을 간직한 세 봉우리, 도담삼봉 04 옥류가 흐르는 단양천 상류기슭에 자리한 하선암 05 바위에 기묘하게 뚫린 석문

**5경 구담봉과 6경 옥순봉**

장희나루에서 유람선에 몸을 싣고 충주호를 흘러가다 만나는 대표적 경승지다. 구담봉은 남한강가 깎아지른 듯 장엄하게 치솟은 기암절벽 위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어 구봉, 물 속의 바위에 거북무늬가 있다하여 구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옥순봉은 희고 푸른 암봉들이 비온 후 죽순 솟듯이 미끈하고 우뚝하게 즐지어 있어 소금강이라는 별명을 지녔다. 구담봉과 옥순봉은 봉우리의 생김새도 절묘하지만 푸른 강물과 어울려 세상에 드문 절경을 빚어낸다. 특히 봄과 가을, 꽃과 단풍으로 점점이 수놓인 봉우리들이 되비치는 구담의 뱃놀이는 천하제일의 흥취로 손꼽혔다. 조선 명종 때 단양군수를 지낸 황준량은 그 광경을 '바위벼랑에는 군데군데 단풍이 물들고, 서리가 내리니 가을 물은 더욱 맑아, 조각배에 탄 사람은 병풍속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읊었다. 명종 초 단양군수로 부임하던 퇴계 이황은 청풍에서 배를 타고 단양으로 거슬러 오르며 여울마다 시를 지었다고 한다. 구담봉과 옥순봉 사이의 소석대에는 이인상의 글씨 유수고산(流水高山)과 함께 구담봉의 장관을 노래한 퇴계의 시가 새겨져 있으며, 옥순봉에도 이황의 글씨로 단구동문(丹邱洞門) 낙자가 새겨져 있다. 단양과 제천시 경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7경 도담삼봉과 8경 석문**

매포읍 도담리 앞으로 흐르는 남한강 가운데 봉우리 세 개가 떠 있어서 삼봉이고 또 섬이 있는 물이므로 도담이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매포읍 도전리 출신으로, 수학하던 시절에 자주 찾던 이곳을 사랑하여 자신의 호를 삼봉으로 지었다고 한다. 세 봉우리의 모양 때문에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에 따르면 셋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남편, 북쪽에 있는 것이 아내, 남쪽에 있는 것이 첩 봉우리이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첩을 얻었고, 곧 아기를 가진 첩은 남편 쪽을 향해 자랑스레 배를 내밀며 배시시 웃고 앉았고 아내는 눈썹이 시어 등을 돌리고 앉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 세 봉우리는 강원도 정선에 있었는데 어느 해 장마에 흘러흘러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정선 땅 관리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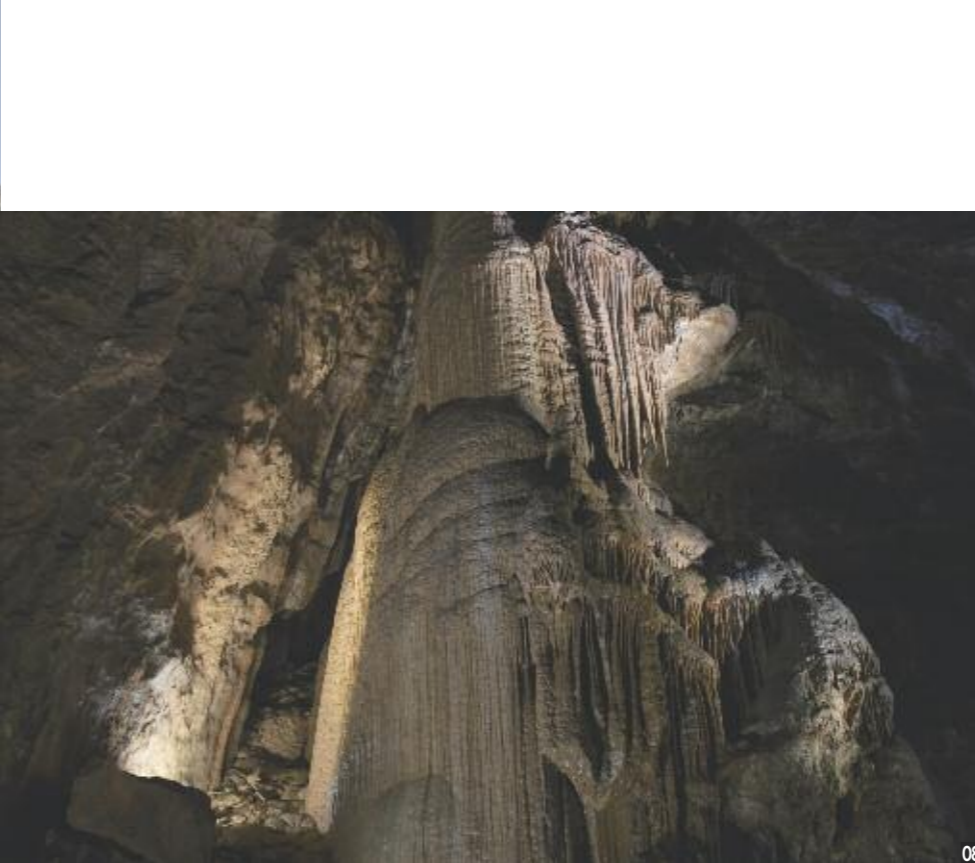
04



05



06



08



09



07

들이 삼봉을 찾아 이곳까지 와서는 원래 자기를 것이라면서 해마다 세금을 걷어갔다. 그러던 어느 해 정선에서 세리들이 오자 한 아이가 나섰다. “저 삼봉은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온 것이요. 그러니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로 가져가시오.” 그 후 도담 사람들은 삼봉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도담삼봉 주차장에서 강을 등지고 오른편 산자락으로 오르면 제8경 석문이 나타난다. 너비 15~20cm, 높이 25m에 이르는 천연석문이 산위에 걸쳐져 단양팔경 또하나의 경승을 이루고 있다. 석문을 통해 보이는 남한강으로 옛날에는 나룻배나 쪽배가 드나들었을 것인데 지금은 관광객을 실은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분주히 오가고 있다.

#### 남한강을 지키던 단양의 산성들

교통이 어려웠던 시절, 강은 지역과 지역을 오가던 중요한 통로였다. 이런 연유로 큰 강의 주요 길목들은 군사적 요충지였고, 그곳엔 어김없이 산성들이 만들어졌다. 남한강 물목을 돌아 봐도 지역마다 강이 휘터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성곽이 자리하고 있으니 영월의 고성산성, 충주의 덕주산성, 여주 파사산성 등이며 단양에는 온달산성과 적성이 있다. 영월과 경계에 자리한 영춘면은 옛날 지금의 단양읍보다 더 큰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온달산성(사적 264호)이 있다. 고구려의 장수인 온달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임을 알 수 있다. 납작납작한 돌을 쌓아 만든 석축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683m에 이른다. 산성에 오르면 휘도는 강과 영춘면의 마을들이 시원스레 펼쳐지는데 그 풍광이 꽤 볼만하다. 근래에는 산성 아래에 드라마세트장까지 만들어져 온달산성, 온달동굴과 함께 단양의 필수 여행코스가 되고 있다. 단양을 비롯한 제천과 충주 등 남한강 유역은 삼국시대 남쪽으로 세를 확장하려는 고구려와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려던 신라의 치열한 싸움터였다. 단성면 하방리에 자리한 적성도 이때 만들어진 산성이다. 적성에는 성 말고도 중요한 유물 한 점이 보관되어있는데, 바로 국보 198호로 지정된 신라 적성비다. 적성비에는 현재 288자의 비문이 남아있으며, 당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적성산성은 사적 265호로 지정되어 있다.

#### 단양의 다른 볼거리들

단양읍내 강 건너의 양백산은 차로 오를 수 있다. 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고 그곳에 오르면 물들이 형태의 강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단양에는 동굴지역도 산재해 있다. 모두 석회암동굴로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 도담리의 금굴 등이다. 굽이치는 강 풍경과 소백산, 월악산 등 빼어난 산세로 단양은 레포츠나 캠핑 등 자연친화적인 레저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양백산이나 봉우등 정상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으며, 시류구동 산악용 자동차인 ATV, 레프팅도 단양에서 즐길만한 놀거리이다.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옥쪽마늘이다. 단양읍내 식당에서 맛보는 마늘 정식도 괜찮다. **E&C**

06 삼국시대에 세워진 산성으로 보전이 잘 되어있다 07 온달산성 아래에 자리한 드라마세트장 08 다양한 모양의 중유석이 신비로운 고수동굴 09 단양팔경 중 가장 뛰어난 풍광, 사인암



# 金炳朝의 明心寶鑑



그간이라도 안녕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삼운(三運)이 있다고 합니다. 천운(天運)과 지운(地運) 그리고 인운(人運)이랍니다. 천운은 화오하는 것이고, 지운은 확정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고 인운은 인간관계의 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종로 관목관에서 옷깃 한번 스쳐는 것도 수집을 통괄 인연이라 하였는데, 때루(每週) 그것도 일년을 넘게 여러분을 뵈는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큰 인운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페이지 역사(歷史)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설명의 순간도 사월(四月)을 끝으로 안녕을 고(告)합니다.

최자정리(倉者定離)라 하지만 사근한 마음 금(禁)할 길 있어 땃자(透) 마음을 정습니다. 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박수와 황호로 맞아주신 그 따듯한 인정(人情), 이와(理科) 출신들이 다수(多數)임으로 하여 '딱딱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그 자상함, 실명(失明) 아기에 안락파키하시고, 제 실수담(失數談)에 격려를 보내주시며, 강의가 끝나고 저의 선창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함께 개인사진을 찍으며 나는 짧은 대화를 식사를 하며 들려주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들과 따듯하신 격려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을수 없는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식장으로 향하는데, 어떤분<sup>님</sup> 밖에 혼자계시기에 '왜 나와 계시느냐' 물었더니 '내 강의를 듣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요양제신 노모님께 전하드렸다' 하시며 눈자가 특추<sup>셨던</sup> 화<sup>한</sup> 그 모습입니다. 그 말씀 듣고 저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만남을 통해 들려드리고 싶었던 <sup>저의</sup> 이야기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였습니다.' 母年一百歲 常慶八十兒 (모년일백세 상우팔십아)

백세가 되셔도 팔십의 자식을 걱정 하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두를 안쓰러워 하자는 거였습니다. 성용을 시켜놓으시고도 못해주시는 것만 생각하시며 미안(未安)해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해 하자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죄(罪)를 범(犯)하였는데도 잘못 가르친 탓이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잘못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老父母 (노부모)님께 안쓰러운 마음에 그만 쉬시라고 관말씀<sup>이러도</sup>을 드리면 '우리 걱정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살아라' 말씀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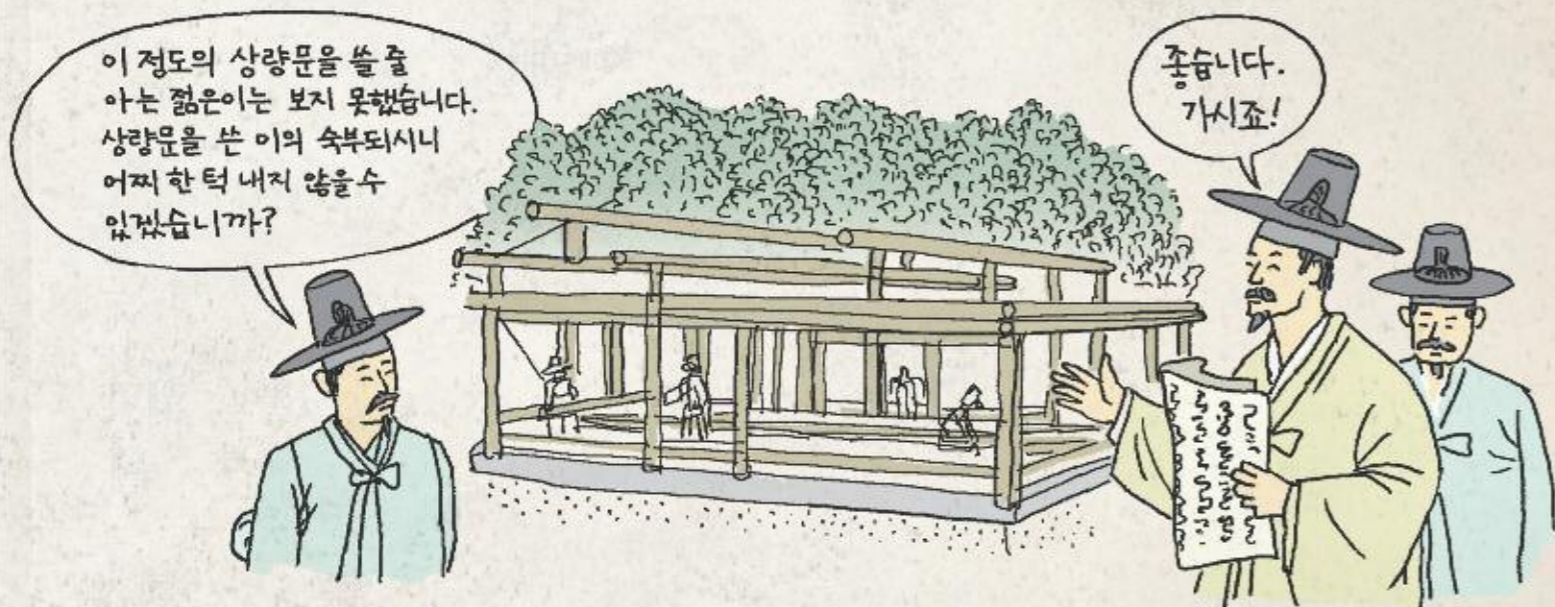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겼든 못 생겼든, 지위가 높든 낮든, 유산이 많든 적건간에 아버지를 존경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존경 하지 않는 자 어찌 어머니를 존경 할 것이며, 복모임을 존경 하지 않는 자 그 누구도 존경 할 것이며, 그 누구도 존경 하지 않는 자, 누구도 복려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러기에 용자(兪子)님의 제자인 증자(曾子)께서 '大孝는 尊親 (대효는 존친) - 효도중의 제 으뜸은 바로 부모님을 존경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나 봅니다. 이렇듯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듯해질까 하는 바램이 제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그간 이곳에 함께 하시며 부족관 저의 말씀에 경청(傾聽) 해주시고 고개 보이며 두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범지 못 하는 사문밖은 있지만 마음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전력기술의 관 카툰이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화락(和樂)이 넘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제 선창(先唱)으로 화이팅을 함께 외쳤듯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국 전력기술 화이팅!

2015년 4월  
배추군장 김병조 올림.





## 공사 현장을 방문한 서당회원들, 완성된 상량문을 칭찬하다

1806년 5월 4일, 임천서당 중건 공사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던 서당 회원들이 방문하였다. 용궁(龍宮, 현재의 경북 예천)의 이장욱(李章碩) 형제가 금수(錦水)로부터 임천서당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주변 경관이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날 천지(泉地)의 김홍운(金鴻運), 지례(知禮, 현재의 경북 김천)의 김익운(金益運)과 김시규(金始奎), 귀현(龜峴)의 김태운(金兌運)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마을 도감과 김시연(金始研)·김시교(金始敎)가 방문한 이들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빈집이다 보니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음식이 없어서 단지 농담을 나누며 담소할 뿐이었다. 김시연이 소매에서 큰 조카 김점운(金漸運)이 쓴 상량문을 꺼내 보였는데, 이장욱이 그 상량문을 칭찬하면서 김시연에게 말하였다.

“이 정도의 상량문을 쓸 줄 아는 젊은이는 내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상량문을 쓴이의 숙부되시니 어찌 한 톱 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김시연이 크게 웃으면서 술을 샀다. 늦게 도착한 만음(晩陰)의 옥현응(玉鉉應)이 자리에 있다가, 서당 회원으로서 늦게 왔다는 이유를 대며 동진 3전을 냈다. 이에 둘러앉아 담화하며 전병과 술을 함께 나누었다.

일기분류 : 서원일기  
출 전 : 임천서당중건일기  
(臨川書堂重建日記)  
시 기 : 1806년 5월 4일  
인 물 : 김시연, 김시교, 이장욱,  
김홍운, 김익운, 김시규, 옥현응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저 자 : 미상

### ◆ 조선시대 양반들의 회식문화

이 시나리오는 임천서당 건립 현장에 모인 서당 회원들이 담소하기 위한 음식상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천서당은 1568년 김진(金璣: 1500~1580)의 셋째 아들 김명일(金明一: 1534~1570)이 주축이 되어 연암사(緣巖寺) 터에 건립하였던 지방 사립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하현 강가에 건립된 이 서당은 1607년 김성일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사우(祠宇) 내지 서원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620년 김성일의 위패는 이황이 제향된 여강서원(蘆江書院)에 류성룡(柳成龍)과 함께 배향되면서 임천서당은 점차 쇠락하게 되었다. 또한 사빈영당 건립시 임천서당의 재목들이 사용되고, 여기에 속했던 토지와 노비들도 모두 사빈영당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임천서당은 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임천서당을 중건하자는 제안이 1803년 3월 구계서원 향사에서 발의되었다. 이종조와 유정엽이 중건을 발의하고, 중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사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임천서당 중건을 위한 임원을 정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임천서당의 건립은 영남 사림의 정신과 연결된 영남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히 임천서당의 회원들은 임천서당 중건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은 공사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용궁에 사는 이장욱, 천지에 사는 김홍운, 지례에 사는 김익운·김시규, 귀현에 사는 김태운, 만음에 사는 옥현응 등은 약속을 하여 1806년 5월 4일에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변 경관은 어떠한지 등을 둘러보며 임천서당 중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둘러보았다.

이들을 맞이한 사람은 이 마을에 사는 도감과 김시연·김시교 등이었는데, 공사현장에 갖추어진 것이 없어서 음식 대접을 못하였다. 그러나 모인 서당 회원들은 작은 핑계를 만들어 술상을 마련하였다. 상량문을 칭찬하며 술상을 마련할 핑계를 마련해 주고, 늦게 온 선비는 자진하여 안주 값을 냈다. 비록 사적인 핑계들이었지만, 이러한 담소들 속에는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

현재 경기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전체 산업생산은 2개월째 감소세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한때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올 5월 수출은 423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었다. 2009년 8월(-20.9%)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출 부진은 전체 산업생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4월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저조로 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에 이어 2개월째 줄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0%대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4개월째 마이너스여서 디스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생겼을 당시 관련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다. 사스 발생지였던 홍콩의 성장률은 2003년 1·4분기에 4.1%였지만 2분기에 -0.9% 내려갔다. 중국은 같은 기간에 10.8%에서 7.9%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인 2009년 3·4분기 한국의 여행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9% 감소했다.

### 메르스 발(發) 내수 위축은 현재 진행형

관광·여행업계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매장 등 유통업계는 메르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 등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수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한국 방문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메르스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 가기를 꺼리면서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줄었고, 사태가 길어지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도 감소해 화장품 같은 관련 수혜 산업도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지난 6월 1~4일 매출은 전년 동기(같은 월~목요일) 대비 8.4% 하락했다. 같은기간 신세계백화점은 매출이 3.7% 줄었다. 이마트 역시 1~4일 전점 매출이 전년 대비 7.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 동탄점(-19.7%)과 평택점(-16.2%)의 타격이 컸다.

관광·여행 업계는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명동 상인들은 매출이 절반 정도로 푹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5~7일 제주도를 찾은 유커도 2만명 정도에 그쳐 전주(3만 400여명)보다 34%나 줄었다. 관광지외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을 찾는 인파도 줄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수출 등에 대한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경우 수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렸던 화장품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주가·매출 타격에 내국인 대상 마케팅 위축 등이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정부 당국의 문제 인식은 다행...

#### 세월호 지원책과 같은 특대책 필요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 당국도 현재 이런 우려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메르스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메르스 확산이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

된다”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가용인력과 필요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부터 메르스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는 주체를 개별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했다. 점검반은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4개 반으로 구성했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대외부문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 당시 발표했던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여행과 운송 업종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자 금융, 세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대책이 마련된다면 관광 등 피해 업종과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부는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연했다. 지원 금리는 2.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 금리로 총 1,000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 등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 내수불안 파고 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나와야

피해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별개로 내수 불안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실제 메르스가 확산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추가 경제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로 ‘패키지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오는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75%로 낮춘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나타나자 이번 달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처럼 경제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상당수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르스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부진과 디스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메르스의 악영향을 줄이려면 우선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추가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곁집어 볼 때다. **E&C**

## 메르스나 한국경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메르스 공포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의 여파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발(發) 내수 침체 우려는 경기 회복과 둔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 MEERS-COV



##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

1887년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이화학당의 당장실로 열 살짜리 여자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그곳엔 아이가 생전 처음 보는 파란색 눈의 서양인 부인이 앉아 있었다. 부인은 아이를 반갑게 맞으며 난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잡아당겼다. 그 순간 아이는 두려움을 느꼈다. 부인이 자신을 난로 속에 잡아넣어 태워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 부인의 친절함 미소를 보며 아이는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 서양인 부인은 바로 이화학당의 설립자인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었으며, 여자 아이는 이화학당 부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점동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개설된 시기는 1885년 8월이다. 그러나 첫 학생이 들어온 것은 그 이듬해인 1886년 5월이었다. 여성의 신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던 때라 양반집 자녀들이 오지 않았던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이화학당에는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입학했으며 김점동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한 김점동은 특히 영어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그래서 1890년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김점동은 보구여관에서 일하고 있던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의 통역을 맡게 됐다. 보구여관(保救女館, 여성을 보호하고 구한다)은 병에 걸려도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던 여성들을 위해 이화학당 구내에 개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이었다. 그곳에서 김점동이 로제타 셔우드 홀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의사의 모습은 늘 칼을 들고 수술하는 것이었다. 당시 의사라는 직업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은 이유였다. 그런데 어느 날 구순구개열 환자, 속칭 언청이라 불리던 10대 소녀가 로제타의 수술을 받고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 후 김점동은 자신도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김점동은 남편 박유산과 함께 1895년 2월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리버티공립학교에 입학했다. 자신에게 의사의 꿈을 심어줬던 로제타 셔우드 홀의 친정이 바로 그 부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도움으로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그해 9월부터 김점동은 병원에 취직해 생활비를 벌면서 라틴어와 물리학, 수학 등을 공부했다. 1896년 10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한 김점동은 각고의 노력 끝에 4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됐다. 당시만 해도 서양의학 공부를 의사가 된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의사 자격증을 딴 서재필과 일본에서 의학공부를 졸업한 김익남 뿐이었다. 김점동은 그들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의사가 된 것이다. 김점동이 미국에서 어려운 유학생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박유산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큰 역할을 했다. 생활비와 아내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박유산은 농장에서의 막노동과 험한 식당일도 마다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아내의 졸업을 2개월 앞두고는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미국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른 김점동은 1900년 10월 귀국했다. 그해 12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잡지인 <신학월보> 창간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부인 의학박사 환국하심. 박유산씨 부인은 6년 전 이화학당을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가 부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하시고 영어를 족히 배울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사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한에 환국하였다. (중략) 미국에 가서서 견문과 학식이 넉넉하심에 우리 대한의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한에 이러한 부인이 처음 있게 됨을 치하하노라.”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그는 소녀 시절 의료보조로 일했던 보구여관의 책임의사로 의료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던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죽은 남편을 기념해 평양에 기흥병원(起忽病院)을 세우자,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평양에 부임한지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또한 평양의 여성 치료소인 광혜여원(廣惠女院)에서도 진료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 등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만든 기흥병원 부속 맹아학교와 간호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고종 황제로부터 은메달을 받았다. 김점동은 엄동설한에도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갈 만큼 열성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 의사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으나, 그의 인술(仁術)은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김점동이 수술로 환자를 간단히 낫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라는 말이 나돌 만큼 명의로 알려졌다.

진료 활동 외에도 그는 근대적 위생 관념을 보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또 인공관을 이용해 방광질 누관 폐쇄수술을 집도하는 등 의미 있는 의료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의료 활동을 벌이던 김점동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질병은 바로 남편을 떠나던 이국의 땅에서 죽게 한 폐결핵이었다. 김점동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베이징으로 요양을 떠나기도 했으나, 1910년 4월 13일 서울의 둘째 언니 집에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아무런 소생을 남기지 않은 35세의 짧은 생이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926년 7월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의 아들인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이 한국으로 건너와 해주세병원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그는 1928년 결핵환자를 퇴치한다는 명분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해주세요양원을 세웠으며, 1932년에는 해주세요양원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셔우드 홀은 늘 어머니와 함께 일을 했던 김점동을 이모처럼 따랐다. 그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들을 위해 노력한 이유 중 하나는 김점동의 죽음 이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은 김점동 덕분에 발행된 셈이다. E&C

# Culture

## Festival

### 부여서동연꽃축제 2015

기간 : 7월 10일 ~ 19일 장소 : 서동공원(공남지) 일원



삼국사기에 의하면 634년 (무왕 35)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 선이 산다는 방장선산을 모방하여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함께 삼국유사의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공남지 주변에 2000년도부터 2만5천

여 평에 식재한 연과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공남지 및 주변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연꽃축제가 개최되었다. 부여의 여름철 대표축제인 <부여서동연꽃축제>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될 만큼 수려한 공남지의 경관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구비된 축제이다.

[www.flowerfestival.co.kr](http://www.flowerfestival.co.kr)

## Musical

### 팬텀

기간 : ~ 7월 26일 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31년간의 기다림, 뮤지컬 <팬텀>의 역사적인 한국 초연!

토니 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아서 코핏, 모리 예스톤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와 서정적이고 클래식한 선율!

1991년 미국에서 초연된 뮤지컬 <팬텀>은 극작가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 콤비에 의해 제작되었다.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원작 소설을 가장 충실하게 살린 뮤지컬 <팬텀>은 베일에 싸인 팬텀의 과거사와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개연성 있는 스토리 라인을 완성했으며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클래식 음악과 프리마 발레리나가 선보이는 고혹적인 정통 발레, 1890년대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로 작품에 정서적 깊이감을 더했다.

[www.musicalphantom.com](http://www.musicalphantom.com)



## Book

### 장자처럼 살라

깨어 있자 시대에 저항해 자유를 선택했던 뜨거운 장자처럼

장자가 각광 받고 있다. 물아일체(物我一體)에서 위안을 찾고 무용지용(無用之用)의 탁월함을 논하는 이가 많아졌다. 고리타분한 공자에 비해 '쿨'한 요소가 있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까지이다. 속세를 벗어난 도인, 초월자인 현인의 이미지에서 나아감이 없다. 장자가 실제 어떤 인물인지 그의 이상과 세계관이 왜 위대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장자처럼 살라>는 장자에 대한 대중의 소견에 죽비를 내리는 책이다. 현실적인 이론가이자 저항정신의 구현자인 장자를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일침을 놓는다. 인문학자 박홍순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장자, 그가 풀어놓는 진짜 '장자학'이 그 옛날 춘추전국시대 못지않게 오늘날 진지한 울림이 되어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박홍순 지음 / 한빛비즈



## Movie

### 샌 안드레아스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마침내 끊어져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하자 구조헬기 조종사 드웨인 존슨은 사이가 멀어진 아내와 함께 외동딸을 구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 속으로 뛰어든다.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네팔 대지진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샌 안드레아스! 샌 안드레아스의 제목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지르는 단층대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단층대가 급속하게 움직이면서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대지진을 일으킨다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거듭되는 재난에도 극복해내는 주인공의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낸다. 영화를 통해 더 짙은 가족애를 느낄수 있을 것이다.

상영중



# KEPCO E&C News

## ● 201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1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5월 26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비상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신재식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장 후보가 비상무이사로, 박지현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 ● 협력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회사는 6월 4일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조직래 원자력본부장, 협력업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원자력본부 협력업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원전 설계정보 보안강화를 위해서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간 주요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원전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김천 이전에 대비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설계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회사차원의 계획과 협력업체의 요구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김천 지방이전을 앞두고 동반자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향후 원자력본부의 사업개발추진 현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구원 사장은 그동안 원전산업 발전에 함께해온 협력업체의 노고를 치하하며 "최근 원전 안전성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김천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원전 설계 정보 보안 및 관리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전한 원전설계와 국민신뢰 회복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 명품오산열병합발전소 최초 전원가압

명품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최초 전원가압 기념행사가 지난 5월 8일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공사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을 비롯하여 DS파워 사장, 관계사 대표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초 전원가압(수전)은 시운전에 필요한 소내전력확보 및 계통병입 후 송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 전원계통으로부터 최초로 수전하는 과정으로 단독 시운전을 위한 최초 공정이다. 명품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의 설계, 기자재구매, 시운전 역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날 최초 전원가압을 통해 국내발전소 건설사업의 초기전원가압 수행실적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시운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 회사 전기기술그룹 박기만 과장은 최초 전원가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발주처인 DS파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명품오산열병합발전소는 2015년 9월 가스터빈 점화, 2015년 12월 계통병입, 2016년 3월에 436MW 발전설비와 열공급량 280 Gcal/h급의 설비를 준공할 예정이다.



## ● 2015년 신입사원 직무입문교육 실시

2015년 신입사원 직무입문교육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기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교과과정은 원자력, 화력, 신재생, 사업관리기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교과 강사들이 교재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신입사원 직무입문 교육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 양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및 사업관리의 기본지식 습득과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은 물론 동료애와 애사심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 ● 2015년도 멘토링 결연식 개최

2015년도 멘토링 결연 행사가 3월 25일과 4월 2일 2차례에 걸쳐 열렸다.

선·후배사원 130명(멘토 33명, 멘티 97명)이 참가하는 2015년도 멘토링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년부터는 서로 다른 소속 본부간 멘토-멘티 결연을 도입함으로써 전사적인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회사의 핵심가치 이해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분당의 불곡산 산행을 실시하여 멘토-멘티간 소통의 호흡을 시작하였다. 박구원 사장은 멘토링 결연식 현장을 방문하여 멘토와 멘티들에게 뜻 깊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명랑한 기업문화의 성숙을 당부하였다.

우리 회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조직 적응력 향상과 리더십 함양을 통해 전사적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직원간의 소통 문화를 구축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회사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부서 및 근무지별로 선정된 14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의 또한 뜨거웠던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상황시 기본 행동요령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실습으로 실질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 KEPCO E&C News



## ● 2015년도 스페셜리스트 워크숍 개최

2015년도 스페셜리스트 워크숍이 지난 5월 27일 한기인재개발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스페셜리스트 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미래전력기술연구소장과 기술전략실장, 스페셜리스트 및 운영팀장 등 47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스페셜리스트들의 역할과 자세를 스스로 인식하고 스페셜리스트를 핵심인력으로 관리 육성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집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 회사 스페셜리스트 제도와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3개 분임조로 나누어 스페셜리스트의 역할 및 자세, 스페셜리스트 제도의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지식 고도화 및 공유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회사는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시기로 하였으며, 스페셜리스트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제2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참가

올해로 제2회째를 맞은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지난 4월 11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마라톤 하프코스(21.0975 km), 10km코스, 5km코스에 참석한 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전기인들의 화합 한마당의 중심에 섰으며, 동종 산업계 종사자간 상호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 컬처데이(Culture Day) 시행

회사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컬처데이를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부서 혹은 팀 별로 자체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컬처데이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내 소통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무부서 기준 소속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활동내용은 각종 스포츠 행사 실시, 영화관람 등 소통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컬처데이 행사를 통하여 임직원 간 신뢰와 소통 증진을 통해 화합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터(GWP : Great Work Place)로 더욱 거듭나길 기대한다.

## News in News

# 김천 신사옥 준공



현장전경사진(5/31)



1층 열린도서관



28층 리프레쉬 라운지



향온환습기 설치



옥외체육시설 조명 야간 시운전

### ■ 공정율(누계) : 100% (2015. 5. 31 기준)

#### ■ 공정추진현황

- 건축
  - 포디움 판넬/커튼월 공사 완료
  - 본관, 포디움 수장/인테리어공사 완료
  - 본관, 포디움 도장공사 완료
  - 본관 OA/약세스 플로어 완료
  - 본관/포디움 카펫타일 완료
  - 본관/포디움 석재공사 완료
  - 안내소 외부판넬 공사 완료
- 조경
  - 포장공사 완료
  - 초화류 및 잔디식재 완료
- 기계
  - 위생도기 설치 완료
  - 장비 종합 시운전 중
- 전기
  - 전기소방공사 준공필증 수령(5/14)
  - 전기공사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완료(5/30)
  - 정보통신공사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완료(5/30)
  - 전기소방공사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완료(5/28)
  - 신재생에너지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검사 완료(5/27)
  - 김천사옥사용승인(5/28)

#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 테니스회



테니스회는 원자력연구소 내 테니스코트에서 본사와 대전 테니스 동호회간 친선대회를 지난 4월 25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AE 및 SD 동호회 간 교류를 통한 소통행사의 하나로서 본사 테니스회원 및 가족 26명이 대전을 방문하여 대전 테니스회원 17명과 함께 금·은조 별 개인복식 예선 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경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개최사를 위해 서종태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이 특별히 참석하였으며 대전 테니스회(회장 : 이광원 상무, 총무: 최우철 대리)와 본사 테니스회(회장 : 이승중 부장, 총무 : 소순기 과장)의 긴밀한 협력으로 화창한 날씨

속에 대회를 성대하게 치루었다. 대회 우승은 금조에서 염계선 부장(계측제어기술그룹) & 최윤재 부장(유체계통설계그룹)조가, 은조에서 이희병 부장(플랜트사업개발처) & 김용훈 차장(계측제어설계그룹)조가 차지하였다. 준우승은 금조에서 김영보 부장(유체계통설계그룹) & 이상록 차장(배관기술그룹)조가, 은조에서 최병화 차장(배관기술그룹) & 최우철 대리(기계설계그룹)조가 차지하였다.

### 참사랑 봉사단

####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봉사단은 지난 5월 17일 결연시설인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행복한 세상 속으로" 나눔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원자로설계봉사단의 후원 및 버스차량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원자로설계봉사단원 및 재가장애인 30여 명이 한 조가 되어 당진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을 방문하여, 목장체험 활동을 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부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쉬운 체험이었지만, 재가장애인 및 봉사단원들이 즐기기에 충분히 재미 있었다. 특히 소 먹이주기, 송아지 우유주기 등 활동적인 체험 후에 있었던 '아이스크림 즉석에서 만들기' 체험은 햇살을 맞으며 걷느라 쌓인 피로를 녹여줄 만큼 재미를 더해 주었다. "신선한 초원목장의 우유로 만들어서 그렇지 시중의 아이스크림보다 더욱 부드럽고 달콤하다"며 재가 장애인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서로 손을 잡고 목장을 거닐며 푸르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목장체험은 재가장애인과 봉사단원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원자로설계봉사단은 참사랑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 사우 애경사

### 결혼



유형근 대리



홍우식 과장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이기섭 사원 : 5월 2일 헤리츠컨벤션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홍우식 과장 : 5월 8일 오키나와 문비치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장홍석 대리 : 5월 9일 안양 M' CLASS CONVENTION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유형근 대리 : 5월 9일 대전유성 계룡스파텔
- ▶ 경영)경영지원처 윤혜림 대리 : 5월 9일 더화이트베일
- ▶ 경영)기획처 진혁 사원 : 5월 10일 스킨라티움
- ▶ 경영)기획처 강종우 사원 : 5월 17일 컨벤션벨라지움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손민정 사원 : 5월 23일 나인트리컨벤션
- ▶ 플랜트)신재생환경기술그룹 최은규 대리 : 5월 23일 강동웨딩KDW

### 부음

- ▶ 미래전략기술연구소 이재항 부장 부친상 : 5월 6일 분당 서울대병원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조은님 사원 부친상 : 5월 6일 서울 성모병원
- ▶ 원자력)원자력기술그룹 박종하 부장 장인상 : 5월 10일 경북 예천농협장례식장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이용노 부장 장모상 : 5월 14일 서울 성모병원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권병인 부장 모친상 : 5월 14일 서울 아산병원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박은성 부장 모친상 : 5월 17일 서울 적십자병원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강동파 차장 부친상 : 5월 18일 목포 호사랑장례식장

###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 동우회 동정

### 문화탐방 행사 알림

-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전 9시 40분
- 만나는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층
- 교 통 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이용
- 참 가 신 청 : 6월 8일까지 동우회 사무실로 신청 (031-289-3141, 조영신)

### 회원소식

- 이덕규 회원 이씨에스(ECS) 컨설팅회사 창업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차 1032호
- 전 화 : 031. 781. 1779
- 팩 스 : 031. 708. 1417

### 결혼

- 김동울 회원 장남 결혼 : 4월 25일 세안웨딩홀
- 김호성 회원 장녀 결혼 : 4월 26일 더 파티움
- 이광영 회원 장남 결혼 : 5월 2일 경주 대명리조트
- 이성주 회원 자녀 결혼 : 5월 9일 명성교회

### 부음

- 양충열 회원 부친상 : 2월 10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 박동림 회원 모친상 : 4월 29일 전주 효자장례식장
- 이상철 회원 부친상 : 4월 30일 분당 서울대병원
- 이재홍 회원 장모상 : 5월 6일 이대 목동병원
- 박성주 회원 모친상 : 5월 9일 인천 길병원

## 렌터카 사용 전, 예약 취소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 Question

#### 렌터카 사용 2일 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환급이 가능한가?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남, 30대)는 거제도 주말여행을 위해 OO렌터카 사업자에 스타렉스 차량을 주문하고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친구가 여행을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겨 사용일자 2일전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OO렌터카 사업자는 주말 예약 취소시 예약금 중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 Answer

#### 예약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했으므로 전액 환급 가능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427건 중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대여 요금 정산을 거부한 사례는 113건(2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의해 사업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한 예약자에게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도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주말 여부를 떠나 렌터카 사용 개시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으므로 예약금 20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C

#### 렌터카 예약 전 꼼꼼히 따져보세요!

보통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기준을 준수하는 렌터카 사업자가 많지 않으므로, 렌터카 예약시 계약서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약 취소 및 중도 해지시 환급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는 렌터카 사업자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렌터카 사업자와 자율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대

소풍 가기 전날 아이처럼  
결혼 하기 전날 신부처럼  
시험발표 전날 수능생처럼  
곧 나타날 무엇에 대한 호기심...  
그것은 기대인 것이다.  
오늘의 호기심은 내일의 기대를  
기다리게 하는 양분이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